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 오직 여호와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제목 : 하나님의 다림줄 성경: 아모스 7장 7-17절

Tag:

7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8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9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10 때에 벤엘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11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12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13 다시는 벤엘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14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뿔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15 양 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16 이제 너는 여호와와 말씀할지니라 네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17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네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네 자녀들은 칼에 앞드리지며 네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암7:7-17)

오늘 말씀은 북쪽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다.

솔로몬의 죄악으로 나라는 둘로 나뉘게 되었고, 하나님은 북쪽 열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주셨다.

여로보암은 그러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제사를 드리러 가는 것을 보고 염려하기 시작했다.

백성들이 결국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사모한 나머지 자신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고 통치력이 약화될 것을 염려하였다. 이런 생각들이 자기중심적인 생각이다. **염려와 욕심과 자존심**이 만나면 생각은 비뚤어지고 판단은 흐려진다. 바르게 보지 못하고 진실은 감추어진다. 해석은 아전인수가 되어 엉뚱한 해석이 된다.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마음에서 멀어지고 만다.

여로보암이 그랬다. 그는 단과 벧엘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산당을 짓고, 제 몇대로 레위인이 아닌 자들로 제사장을 고용하였다. 돈벌이에 눈이 먼 자들이 제사장 노릇을 했다. 감냥이 되지 않는 자들이 제사장 노릇을 하는 셈이다. 금송아지 우상도 만들어 놓았으니 우상을 좋아하는 자들은 더할 나위 없이 신이 났다.

일단은 하나님께 미안하기도 하고, 죄책감도 들었으리라. 그러나 얻게 되는 수익이 너무 컸고,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어서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 되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기가 막히고 천인공노할 지경이었다. 하나님은 여러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셨다.

오늘 아모스도 그런 선지자들 중 한 사람이었다.

하나님은 아모스에게 여러 가지 환상을 보여 주셨다. 7장에 다림줄 환상을 보여 주시기 전에도 두가지 환상이 나온다.

첫 번째 환상은 황충의 환상이었다. 황충이 나타나서 모든 곡식들을 먹어치웠다. 그래서 아모스는 재빨리 중보의 기도를 드렸다. 야곱족 속들이 미약한데 이렇게 하시면 모두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재앙을 철회 하셨다.

두 번째 환상은 큰 불에 대한 환상이었다. 이 불이 얼마나 극렬한지 놀랍게도 바다를 태워 버렸다. 그리고 육지까지 먹으려고 하였다. 며칠전 LA에서 번진 산물과도 같았나 보다. 아모스는 깜짝 놀라 재빨리 중보의 기도를 드렸다. 하나님은 분노를 삭이면서 이 재앙도 철회 하셨다.

세 번째 환상은 아예 아모스가 중보의 기도를 드릴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손에 다림줄을 들고 담 곁에 서 계셨다.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다림줄이 보입니다.’

‘내가 다림줄을 이스라엘 가운데 베풀고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

-이삭이 산당(우스꽝스러운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훼파될 것이다.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여로보암 2세;예후왕조의 네 번째 왕)의 집을 치리라.

-아마샤라는 어용 제사장이 즉시 아모스를 고발하였다.

-그는 아모스가 모반을 일으킨다고 없는 말을 지어냈다.

-여로보암은 칼에 죽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로잡혀 이방 땅에 끌려 갈 것이라 하나이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대답이 없다. 아마도 선지자들을 건드려서 좋을

것 없다고 판단하였으리라.

-아마샤로 하여금 적당히 돌려보내도록 하였을 것이다.

-아마샤는 제사장 노릇을 해서 먹고 살고 있으니, 그가 알아서 처리하도록 함이 지혜라고 여겼을 것이다.

-아마샤는 직업의식으로 아모스를 대적하였다. 네가 예언할 것이 있으면 네 고향 유다로 가서 예언해라. 유다에서 예언하고 밥벌어 먹도록 하라. 여기는 내 구역이다. 내 구역에 와서 밥벌이 하지 말아라.

-나는 왕으로부터 직접 세움을 입은 제사장이다. 나는 너처럼 환상이나 보는 족보도 없는 예언자와는 격이 다르다.

-아모스가 답하기를, 나는 정통 선지자가 아니다. 즉, 직업적으로 선지자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아니다. 정식으로 신학을 한 것도 아니고, 선지자의 가문에서 태어난 자도 아니다.

-나는 원래 목자다. 또 뽕나무를 재배하는 농부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서 예언하라고 하셨다. 나는 밥벌어 먹기 위해서 예언자 노릇을 하는게 아니다. 단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뿐이다.

17절은 어용제사장 아마샤에게 주시는 심판의 말씀이다. 감냥이 되지 않는 목사들은 회개해야 한다.

(17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네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네 자녀들은 칼에 엎드리지며 네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다림줄은 건축할 때 담이나 벽이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도록 중심을 잡도록 기준을 잡도록 지표를 만들어주는 줄이다. 다림줄로 재어 봐서 기울어진 담은 넘어지게 되어 있다.

-지금은 서 있는 듯 하나, 결국에는 넘어진다. 결국에는 멸망하게

된다는 뜻.

-당시에 앓수르는 다메섹과 싸우는 중이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못했다. 덕분에 이스라엘은 평온한 가운데 풍요를 누리며 살고 있었다. 그들은 교만하였고, 이 번영은 자신들이 잘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재앙이 닥칠 것이다.

그때 그들은 순식간에 망할 것이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운명도 이와 같다. 현재 우리나라의 안보는 미국과의 동맹으로 굳건하다. 심지어 동맹을 믿고 군인정신은 사라지고 말았다. 현재 우리나라의 정신은 북한 발 주체사상과 댓글공격으로 심한 독감에 걸려있다. 2017년 한해는 이 공산주의 바이러스가 기승을 떨치는 한해였다. 현재로서 우리나라를 지탱하는 힘은 한미동맹과 께어있는 기독교인들의 중보기도에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안보는 위험하고, 경제는 언제 위기가 닥칠지 모른다.

물론 현재 개인의 삶은 더할 나위 없이 평온하다. 현 정부는 나라의 곳곳을 헐고 평평 써댄다. 여로보암과 같이 백성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쓴다.

개혁을 외친다 해도 다림줄을 무시할 수는 없다.(공의, 법률) 혁신은 다림줄을 무시해도 된단 말인가? 노동자만 위하면 세상은 잘 돌아가는가? 공무원을 늘리는 것으로 일자리가 만들어지는가?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그럴듯한 경제놀이를 하겠다고 한다. 소득이 늘면 소비가 늘고 소비가 늘면 경기가 활성화 되고 그러면 투자가 일어나고 일자리가 생길 것이라는 생각이다.

그런데 정작 소득은 어떻게 생긴나? 공무원 수를 늘려 세금으로 소득을 올리겠다는 것인가? 부자들에게서 돈을 빼앗아 가난한 자들의 소득을 올리겠다는 것인가? 가난한 자들이 그 돈으로 소비를 할까?

No. 깊이 생각하는 자들은 돈을 땅에 묻어둔다.(일본이 그랬다.) 땅에 묻어 두고 찢끔 찢끔 곳감 빼 먹으면서 평생 살려고 한다. 졸부들의 전통적 방법. 그래서 소비로 이어지기 힘들다. 정부는 빚을 더 내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저금리로 인해서 빚이 산더미인데 빚내서 소득을 올린다니 얼마나 불안한가?

우리나라는 정신차려야 한다. (원전 정책 잘못 건드려서 그 불똥이 UAE로 번졌지 않나?) 지금도 이명박 전대통령 사저에 촛불들고 시위한다.

경건한 나라가 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성공하지 못한다. 경건하지 아니하면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미국이 아직도 건재한 이유는 경건한 기독교인들이 많기 때문이다.

영성이 순전하지 아니하면 경건할 수도 없다. (지금 이 나라에 아마샤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 많다.)

너무나 간단하고 단순한 기초적인 이야기이다.

가정이 경건하지 아니하면 훌륭한 인재를 기대할 수 없다.

나라의 기초 지력이 없으면 그 나라는 사상누각이다.

안보가 든든하지 아니하면 제대로 성장할 수 없다.

(전쟁은 없다고 안보를 무시하면 큰 코 다친다. 전쟁이란 전쟁이 없다고 안일할 때 일어나고, 전쟁을 잘 준비하면 전쟁은 훨씬 적게 일어난다.)

다림줄을 띄워 놓고 내 정신을, 내 삶을, 내 생각을, 내 마음을 가늠해 보자. 무너지면 삼시간에 무너진다. 하나님께서 직접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나라에 다림줄을 띄우고 계신다.

기초를 다지지 아니하면 크레인은 무너진다.

<찬양예배>

제목 : 새 시대, 새 물결, 새 교회 성경: 에베소서 4장 21-24절

Tag:

21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22 너희는 유희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

23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24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엡4:21-24)

- 욕심을 따라가지 말고 진리를 따라가자.
- 복음을 처음부터 다시 점검하자.
- 심령을 새롭게 하자. 마음을 순전하게 하자. 생각을 비우고 다시 시작하자.
- 1mm라도 오치가 있다면 그 기초는 다시 세우자.

- 가정에 충실하자. 최고의 보금자리, 사랑이 넘치는 가정, 화목한 가정, 행복한 가정, 풍요로운 가정,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정이 되게 하자.
- 세속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나태나, 낭비나, 더러움이나, 불성실을 용납하지 말자.
- 일터에 충실하자. 일터에 하나님의 기름부음을 사모하자. 일터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자.

- 예배에 최선을 다하자. 철저히 준비하자. 하나님께 잘 보이자. 교인들에게 최선을 다하자. 기쁨으로 봉사하자. 아버지의 마음으로 중보하자. 서로 배려하며 챙겨주자.

- 교인들끼리 입조심, 꼭 경건에 모범을 보이자.
- 말씀을 사모하며 기초신앙에 소홀하지 말자.
- 교회가 더 매력적인 곳이 되도록 노력하자. 믿음이 부족한 자들이 와도 포용력이 큰 교회가 되자. 그러려면 경건한 자들이 많아야 하고, 그들에게 따뜻한 가슴이 있어야 한다.
- 잃어버린 영혼에게 관심을 갖고,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
- 항상 기도의 제목을 가다듬고 기도를 쉬지 말자.

기독교 율법주의

- 은혜 율법주의(불법 양산)
- 믿음 율법주의 (구원과 영향)
- 영광 말고 민주주의 평등 율법주의(사회주의 율법주의)
- 갑질 주의
- 봉사 율법주의
- 경건 율법주의 경건의 목적은 양반됨이 아니라 섬김
- 공산주의 영향으로 말미암은 병폐
- 노인 교회
- 신적폐-여성주의